

제주시, 이형상 종가서 탐라순력도 매입

국립제주박물관이 대여...탐라순력도실 마련해 복제본 상설 전시도

데스크승인 2014.01.16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탐라순력도는 이형상 목사의 종가에 간직돼 오다가 1998년 12월 제주시가 3억원에 매입해 소장하고 있다.

이후 국립제주박물관이 2002년 제주시에게서 탐라순력도를 대여해 기획전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제주시는 2004년 영인본을 제작한 후 제주목 관아에서 판매해 왔다.

탐라순력도 진본은 국립제주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데, 책장마다 변색을 막기 위한 중성지가 끼워진 채 온·습도 유지에 뛰어난 오동나무 상자에 담겨 있다. 특별 대접을 받는 셈이다.

특히 국립제주박물관은 2008년 탐라순력도 복제본을 제작하고 탐라순력도실을 별도로 마련해 상설 전시하고 있다. 주요 순력 장면들이 벽면에 걸려 있고, 스크린에서도 상영되는 등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조천성에서 군사훈련과 말을 점검하고(조천조점), 김녕 용암굴을 둘러본 뒤(김녕관굴), 정방폭포를 구경하고(정방탐승), 서귀진의 군사를 살폈다(서귀조점)....

천제연폭포에서는 활을 쏘고(현폭사후), 굴나무 숲에 들어가 풍악을 곁들인 잔치(고원방고)를 펼쳤으며, 산방굴 앞에서는 잔을 기울였다(산방배작)....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관람객은 '300년 전 제주'와 대면할 수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